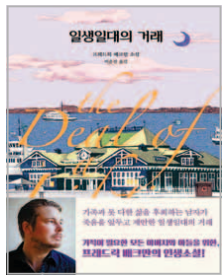


신간

● 일생일대의 거래



(프레드릭 배크만 저·이은선 옮김 | 다산책방)

‘오베라는 남자’의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신작 소설. 가족과 못 다한 삶을 후회하는 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거래를 그리고 있다.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이 이야기는 살면서 누구나 하나쯤 남길 법한 후회에 대처하는 한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독자들은 냉정한 주인공을 증오하겠지만, 몇 페이지 만에 그를 사랑하고 응원하게 될 것이다.

● 감정을 읽는 시간



(홍경희 저 | 넓은마루) 2003년 현대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홍경희 시인이 8년 만에 신작 시집을 출간했다. 첫 시집 ‘푸른 생각’이 미 워싱턴대 소장 시집으로 선정되는 등 문학적 실력을 인정받은 홍 시인의 이번 시집은 중년이 되어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삶의 무늬들로 가득하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작시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특징. 시인은 시어를 통해 “살아있는 한 진솔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양형모 기자의 공소남닷컴 | 3년만에 대학로로 돌아온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햇살 쏟아지는 무대·달콤한 대사... “참 예쁘네”

고아소녀와 얼굴없는 후원자의 사랑
혼성 2인극...배우들 열연에 입소문

누구나 다 아는(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숙한 이야기, 혼성 2인극이라는 흔치 않은 시도, 배우들의 열연으로 공연 팬들 사이에서 “재밌다”, “괜찮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돌았던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가 2016년 국내 초연 이후 3년 만에 대학로로 돌아왔다.

존 그리어 홈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소녀 제루샤 애봇과 그에게 대학 장학금을 대주겠다는 정체불명의 남자, ‘키다리 아저씨’ 제르비스 팬들만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등장인물이다.

이야기는 제루샤의 편지 낭독으로 진행된다. 박소영 연출은 제루샤 배우들(유주혜, 강지혜, 이아진)에게 “객석의 관객 모두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하며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제루샤가 고아원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제르비스는 서재와 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둔 인물이다. 한 마디로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으로 제루샤의 낯것과 같은 일상이 담긴 편지를 받으면 책부터 뒤적이는 남자다.

다른 후원대상자들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종이파일에 담겨져 서랍에 처넣어 지던 제루샤의 편지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르비스의 서재 책꽂이에 하나둘씩 붙여지기 시작한다. 제루샤에 대한 제르비스의 심리 변화가 흥미로우면서도 통쾌한 구석이 있다.

신성록이 연기한 제르비스는 2016년 시즌에도 보았다. 약간의 허당끼가 있는



고아소녀와 얼굴 없는 후원자로 만나 결국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제르비스(오른쪽·신성록 분)와 제루샤(강지혜 분). ‘키다리 아저씨’는 혼성 2인극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예쁜’ 뮤지컬이다.

훈남 역활이 잘 어울린다. 아쉬운 점은 차기작인 뮤지컬 ‘레베카’ 출연을 위해 중도 하차했다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은 제르비스가 3명(강필석, 송원근, 김지철)이나 더 남아 있으니 안심하시길.

제루샤의 편지로 극이 진행되는 만큼 아무래도 비중이 제르비스보다는 좀 더 크다. 제루샤 역의 강지혜는 전작인 연극 ‘왕복서간’에서도 보았던 배우. 대사 톤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래할 때의 톤도 대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말하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말하는 배우다. 귀

엽고 발랄한 제루샤를 보여주면서 성장해 나가는 미묘한 변화를 잘 드러냈다.

요즘 작품들의 트렌드(?)답게 무대가 참 곱다. 갈색톤의 클래식한 V형 무대인데 V자의 꼭짓점에 서재 책꽂이, 날개 끝에는 두 개의 키다리 창문을 배치했다. 무대 중앙에는 제르비스의 값비싸 보이는 원목 책상을 두었다.

시골의 농장을 방문한 두 사람이 각자 창문 앞에 서서 활짝 열어젖히는 장면이 있다. 창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환한 햇살이 무척 아름답다. 두 사람의 관계

전개를 살짝 보여주는 근사한 ‘떡밥’이다.

피아노와 현악기로만 이루어진 반주도 극과 잘 어울렸다. 배우들의 대사를 반짝 반짝 빛나게 닦아주는 세련된 반주였다.

인기작답게 일찌감치 매진이어서 공연장 2층 뒤쪽 자리에서 관람했다. 시야가 가팔라 스키장 고급자 코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 아찔했음에도 극에 흠뻑 빠져들어 관극했다.

2시간을 보고 들었는데, 좀 더 보고 듣고 싶었던 작품. 참 예쁜 뮤지컬이다.

hmyang0307@donga.com

문화 단신

● 조이오브스트링스 음악회 ‘클래식&뮤지컬’



(12월 19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BK홀)

참신한 기획공연과 해외 초청연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

는 조이오브스트링스가 ‘클래식&뮤지컬’이라는 타이틀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1부는 클래식, 2부는 뮤지컬 곡들로 꾸며진다.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비롯해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캣츠’, ‘맘마미아’ 등 걸작 뮤지컬의 넘버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클래식과 뮤지컬을 한 자리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페라 소프라노 하나린과 바리톤 박정훈이 함께 한다.



● 파리나무심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12월 21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 유일의 아가펠라 합창단으로 잘 알

려진 파리나무심자가 소년합창단이 올해도 한국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콘서트의 테마는 ‘노트르담 드 파리’. 850년 동안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울려 퍼졌던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가펠라 음악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이 합창단의 시그니처 곡인 ‘목소리를 위한 협주곡’도 들을 수 있다. 앙코르 곡으로는 한국 노래를 준비했다는 소식이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명품 골프 기모폴집업/ 반집업니트/ 초특가 파격 세일!! 2점 49,800원

2020 BEST

품격있는 골프니트로 최고의 활동성 자랑!



폴집업A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디자인에 반하고, 따뜻함에 또 한번 반하게 될 전천후 니트. 폴리에스터100% 안감기모로 내추럴한 디자인에 안감 기모가 더해져 실용적이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폴집업B



폴집업C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디테일로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 신축성과 활동성이 높아 착용감이 좋으며, 탄탄한 조직감의 소재로 제작. 오랫동안 착용해도 변형이 없다. 소매부분 뽕뽕한 시보리 제작.



반집업A

디테일을 살리다

실한을, 정교한 디테일, 구조적 형태를 위해 노력했다. 지루하지 않은 위트있는 센스와 소매의 트임, 딱 떨어지는 어깨선, 입체감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 겨울 골프웨어 느낌의 스포티한 기능성, 실용성을 결합하여 세련미 넘치는 룩을 지향한다.



반집업B



반집업C



반집업D



안감 전체 기모 적용



세련된 지퍼 적용

사이즈 95, 100, 105
판매가 2점 428,000원- 49,8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492,000원- 74,7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튼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